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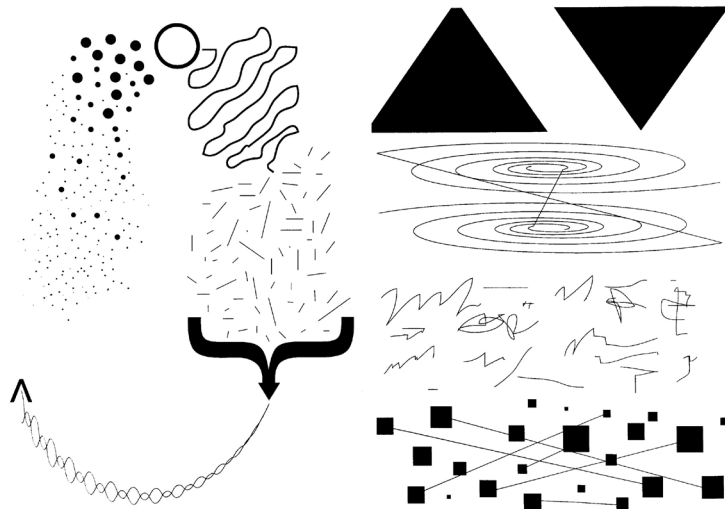
봄 그리고 하늘, MMM



박경소와의 인터뷰 사운드 모듈에 대한 실험

배남우 (M3 프로젝트 매니저)

1



손 그린리 + 박경소 협업공연 <순회자> 악보, 2015

M3 개관 프로그램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렸던 것이 위의 그래픽 악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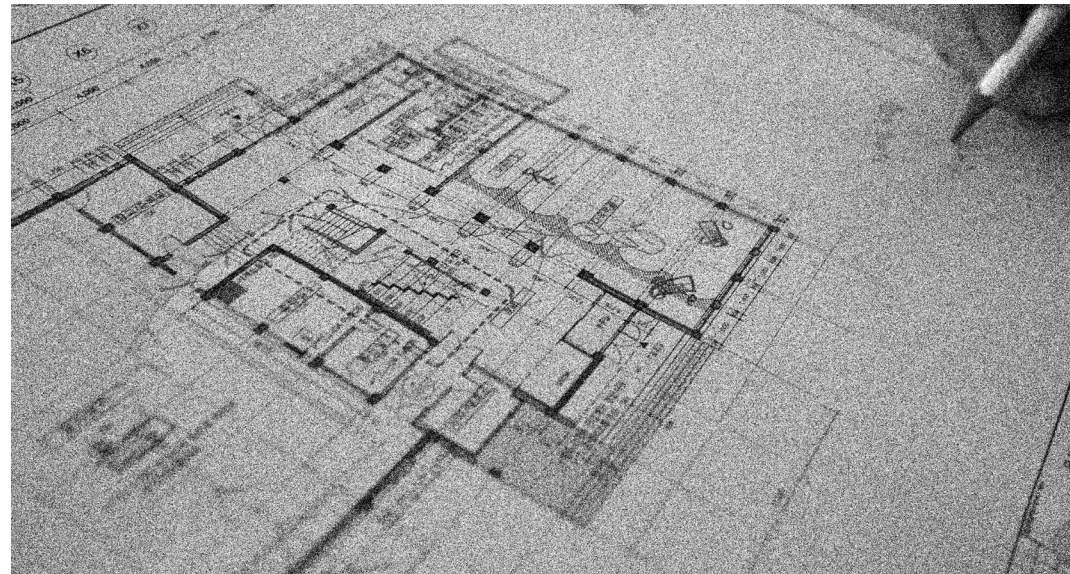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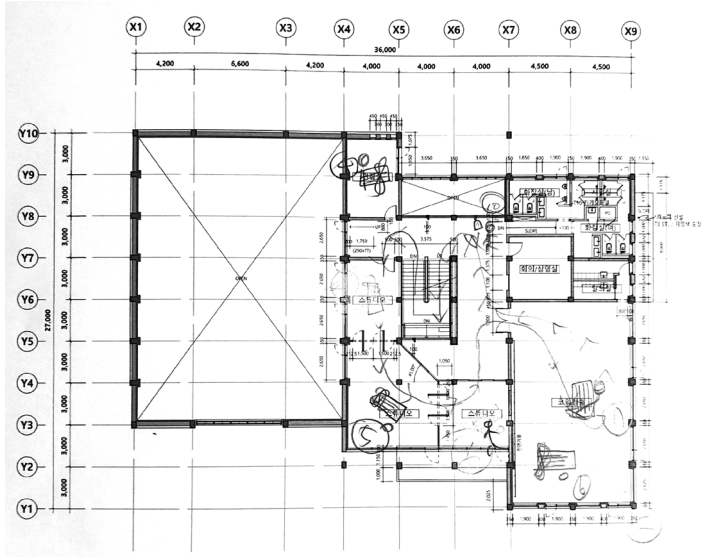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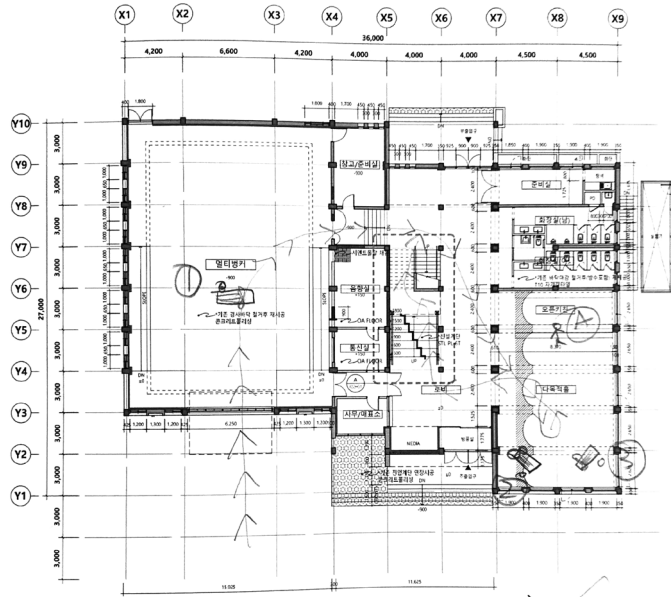
박경소 작가님이 2015년 경기창작센터에서 손 그린리(미국 사운드 아티스트)와의 협업 공연에 사용했던 악보였는데, 공간과 시간, 역사, 자연처럼 물질적이고 추상적인 요소들이 그래픽 데이터로 표현되고, 그것이 가야금과 컴퓨터 사운드를 통해 즉흥적으로 변환되는 과정이 흥미로웠습니다. 해석하는 사람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표현될 수 있는 자유로움이 ‘다공성 공간(porosity space)’으로서의 M3와 잘 맞을 것 같았어요. 그동안 다양한 국가와 문화의 공연장에서 연주하신

프로 뮤지션으로써, 텅 비어 있고 불완전한 공간인 M3를 처음 방문하셨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을지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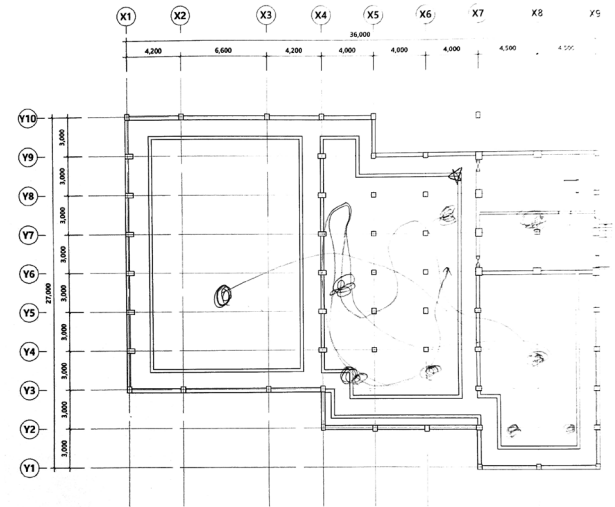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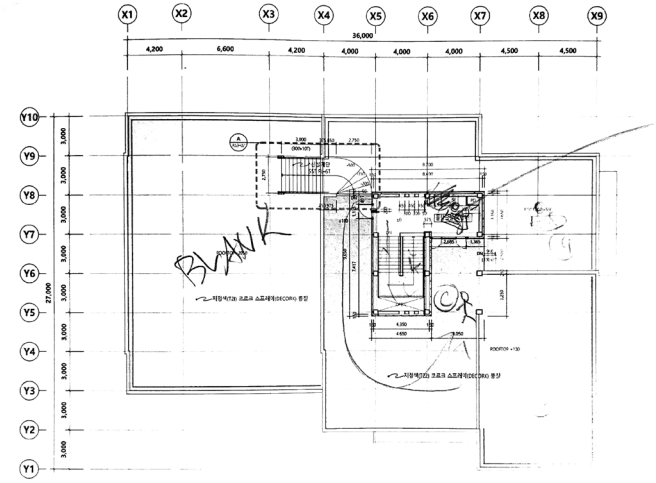
박경소 : 처음 드는 생각은 야호!! 였습니다. 하하하.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실험해 보면서 놀 수 있겠다! 였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냥 순간적으로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며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있었던 소리와 그림들을 만들어 봐야겠다 싶었죠. 그 기회가 온 거예요. 드디어! 그래서 말 그대로 야호!! 아직 정리되지 않았던 M3에 저의 첫발을 내디디고 들어가서 각 공간을 둘러보면서 이미 실시간으로 제 머릿속에 들려오던 소리와 그려지던 그림들의 경험은 잊을 수 없습니다. 티는 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날 사실 완전 물 만난 물고기였어요. 하하하.

아 그리고 M3는 불완전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제게는 텅 비어있지는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그 공간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전에 수업을 하던 공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재설계가 된 공간의 형태가 존재하고요. 또 공사하는 옆 건물, 전투기 소리, 사시사철 변하는 나무들 이러한 것들이 재미있었어요. 이러한 것들이 제게 또 다른 자극이 되기도 하고 필요한 제약이 되기도 했어요. 저의 은사님이신 황병기 선생님께서 저의 어떠한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해 주신 적이 있으세요. 제약이 있어야 재미있는 거라고. 테니스를 치는데 테니스 코트 안에서 쳐야 재미있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치는 게 재미있겠느냐고. M3가 딱 그러했습니다.

2018/04/14



2018/04/14



Name: Kyungso Park
 2018. Apr.

MMM
 (2018. 5. 18)

M0 Prelude for All.

M1

M2 (2018. 5. 18)

M3 7:

M4.

(7:)

2018. Apr.

M5. Basic ①

(L.H) add-up ①

(L.H) add-up ②

(L.H) add-up ③

0 → 1 → 2 → 0 → 3 → 2 → 1 → 0

IF T T T T T T

M6. Basic ①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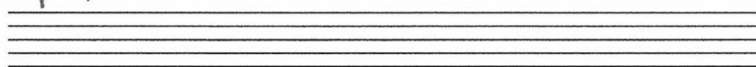
②

en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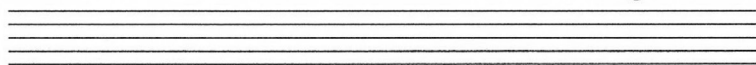
M1 at #1 2 4

x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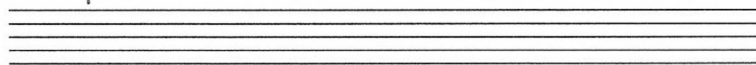
M2 at #1 &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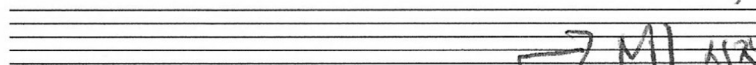
아니 아니 뭐 아니 뭐 아니 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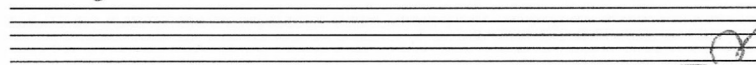
아니 아니 뭐 아니 뭐 아니 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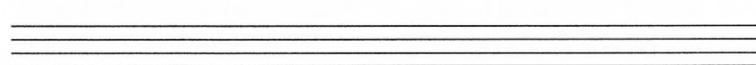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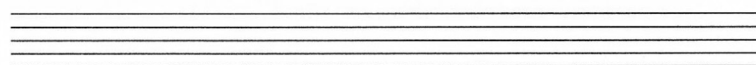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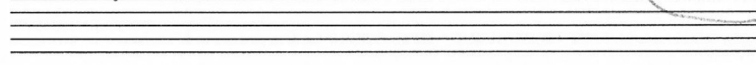
아니 뭐 아니 뭐 아니 뭐 아니 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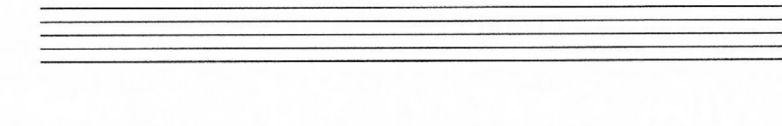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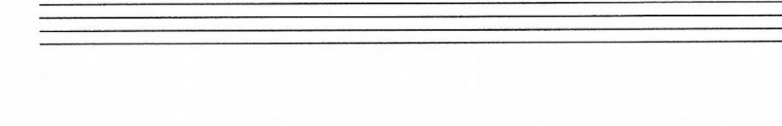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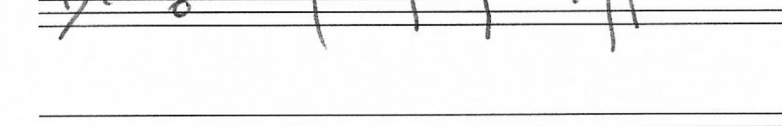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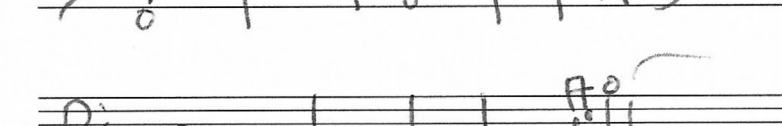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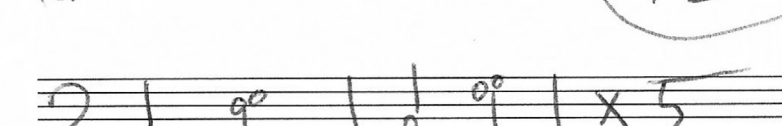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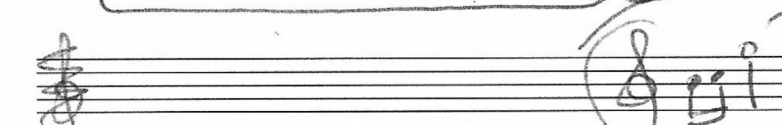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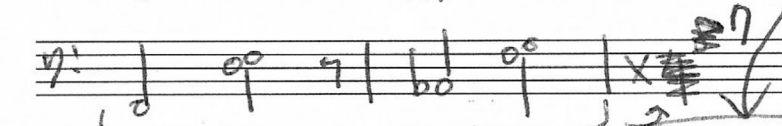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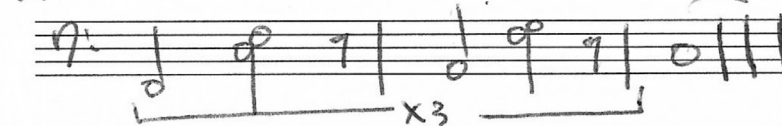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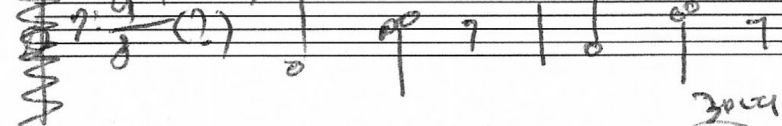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M3 at #2



M4 at #3

x4

x2

x12

x(13?)

ending

with speaker $\text{b}^2 \text{e}^2 \text{e}^2 \text{a}^2 \text{m}^2 \text{m}^2$

M5 at #7

①

②

③

L.H.

L.H.

L.H.

($\frac{2}{2}$ or 9/16)

0 → 1 → 2 → 0 → 3 → 2 → 1 → 0

F T T T T T T -

M6 at #17.

①

①.1

①.2

①.3

②

②.1

ending

#0 맨날

#1 POPPED UP!

#2 WHY? 태이것이 어땠을까.

#3 찡찡새에따다. (먼저는 못갈지도)

#4 모였다. 하나가되었다.

#5 다시 나를 들여다보는

#6 죽변을 둘러보는 들여다보는

#7 다음 세계로 후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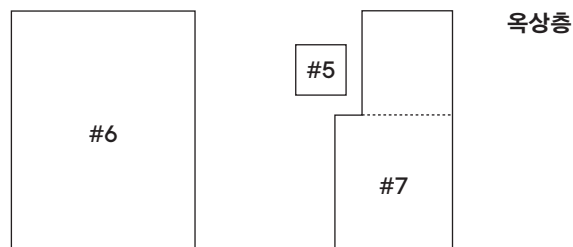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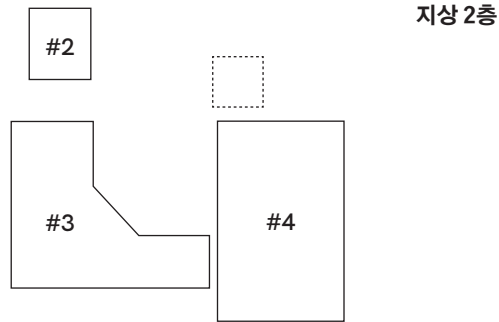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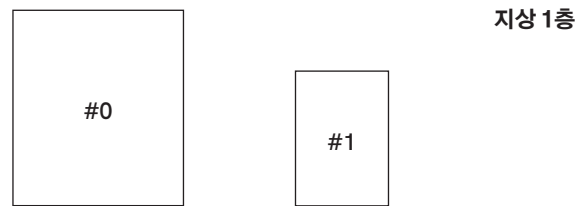
M3 봄 그리고 하늘, MMM 공연 감상법

1. 종소리가 들리면 다음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2. 날아가는 비행기 소리가 들리면 모든 것을 멈춥니다.
3. #7에서 모든 음악이 끝난 후 부터는 더욱더 자유롭게 모든 공간을 이동 하시면 됩니다.

제약도 공연의 과정 / 일부로 활용하기로 한 아이디어가 무척 재미있었습니다. M3가 위치한 경기상상캠퍼스는 인근의 수원비행장 ‘전투기 소음’의 제약을 많이 받는 곳이에요. 회의나 대화 중 전투기가 뜨면 모두 일시정지상태가 되어버리는 불편함이 있는데, <봄 그리고 하늘, MMM>에서는 전투기 소음도 공연의 일부로 간주한 점이 흥미로웠던 것이죠. 사람이 바람직하다고 느끼지 않는 소리로 간주하는 것이 소음, 조화로운 음의 높고 낮음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어떤 음악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이 선율/가락이라면, <봄 그리고 하늘, MMM>은 두 개의 이질적인 소리가 공존하는 실험적인 공연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공연 당일 우천으로 인해 전투기가 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조용하고 차분한 공연이 되었지만, 계획했던 실험은 실패로 돌아간 셈이죠.

박경소 : 네 맞아요. 비행기 소리가 날 때 모두가 정지하자는 2번 규칙은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 수포가 되었어요. 정말 아쉬웠지만 사실 없어진 것은 2번뿐 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백의 다섯 번째 공간(#5)과 그대로를 마주할 여섯 번째 공간(#6) 그리고 하늘과 구름의 일곱 번째 공간(#7)이 없어졌거든요. 특히 #7에서 연주하는 곡은 자연과 맞닿은 옥상 야외에서 연주가 되어 했을 곡들인데 고심 끝에 #5에서 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또한 #6과 #7로의 이동은 #5에서 마지막 연주가 되는 공연 중에 결정했어요. 비록 #6과 #7이 섞여 버렸지만 결국 옥외로 나가면서 공연을 마무리 지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공연을 통해서 M3의 모든 공간을 소개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계획과 달라진 것은 많았지만 사실 비가 와서 내심 좋았어요. 비가 온다고 못 할 공연은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오히려 더욱더 분위기 있는 공연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이사갈 때 비 오면 복이 들어오는 거라는 말. M3는 정말 멋진 작업들로 가득 찰 공간이 될 것 같아요. 비 때문에 더욱더 고생해주신 우리 감독님들 작가님들 연주자님들께 갑자기 감사 인사 드리고 싶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최고예요.



③

정적으로 진행되는 일반적인 공연과는 달리, 관객이 M3 내 공간들을 이동하며 공연을 관람해야 하는 ‘관객 이동형 공연’을 제안하셨습니다. ‘공연 관람’과 ‘공간 체험’이 번갈아 가며 일어났던 점이 관람객으로 하여금 국악을 좀 더 실험적이고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게 했었던 것 같아요. 관객이 이동하면서 들어야 하는 연주, 그리고 공간과 가야금 사이의 유기적인 연결 구조나 내러티브는 어떻게 구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박경소 : 이번 공연은 그간 제가 만들었던 공연 중에서 손 꼽을 수 있는 꽤 복잡한 작업이었는데요, 답을 드리는 것도 역시 복잡할 것 같습니다. 하하하. 우선은 이런 이동 형태의 공연은 제가 처음으로 만든 것은 아니에요. 이미 연극이나 무용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극이 만들어 진지는 꽤 오래전부터이구요. 음악 공연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그저 관객 이동형 공연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라는 막연한 생각을 해 봤었던 것이고 이번에 그것을 처음으로 직접 실현해 본 것입니다. 물론 국악 공연 특히 가야금 공연에서 이러한 관객 이동형 공연을 했다는 이야기를 저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기는 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 관객의 이동이 필요했던 이유는 공간을 소개함도 있지만 오신 관객분들께서 음악을 자발적으로 분석하면서 듣는 것을 경험해보시길 바랐어요. 이게 무슨 말이나면요, 음악을 만들 때 각 소리의 위치가 매우 중요한데 그것을 관객들의 이동으로 실현을 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 만들어진 합주곡을 듣는 것이 아니라 관객들이 선택에서 합주곡을 듣는 것이죠. #0에서는 공연을 소개하는 서곡과 같은 공간이고 관객들은 #1부터 #7까지 이동을 하며 음악의 겉모습이 아닌 내밀한 소리들을 듣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소리의 위치

공연의 전체적인 그림은 아주 순식간에 결정 되었지만, 세부적인 생각들은 단순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공연으로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 지지는 않았지만요. 처음엔 우선순위를 나눌 수 없는 복합적인 것들을 생각해야 했거든요. 각 공간의 특징과 음악, 음악의 형태와 연주자의 수를 결정하는 것 그리고 관객의 동선과 각 공간에서 일어날 일들 등등을 동시에 생각하며 서로가 얽히고설킨 듯 엮어나갔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부터는 순서대로 정리를 해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했다고 정확히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대개는 다음과 같이 창작의 흐름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공간을 나눔”에 있어서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제가 그곳을 처음으로 가서 지났던 동선을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공간을 처음으로 맞이한 그 움직임은 매우 자연스러웠을 테니까요.

2. “공간의 특징”도 매우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각 공간이 확연히 다른 형태였고 각각의 분위기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다만 옥상의 경우에는 외부와 연결이 되어 있는 곳이었기에 함부로 나눌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그 역시 M3 건물 본연의 형태에 집중해서 나누었습니다.

3-1. “음악에 대한 계획”은 M3를 가야금 소리로 가득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음악의 초고를 만들면서 동시에 몇 명의 연주자를 섭외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했어요.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연주자의 수가 중요했거든요. 또한 누구를 섭외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여 각 세부적인 소리 들을 결정 지어야 했고요. 각 연주자마다 각자의 고유한 소리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음악, 공간, 연주자 이 세 가지 요소들을 생각하며 이중주 또는 독주를 중심으로 공간을 가야금 소리로 가득 메우기로 했습니다.

3-2. “각 공간의 음악”은 서로 연결되어야겠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같은 공간이지만 서로 다른 방을 들어가는 것이고 실내와 실외가 나뉘어 있기도 한 아주 단순한 이유에서입니다. 제일 먼저로는 1층과 2층 실내에서 연주할 합주곡을 만들었고 그다음은 옥상 층 야외에서의 합주곡이었습니다. 합주곡을 만든 후에는 다시 분해하여 각 공간에 배치했죠. 이를 위해서 각각의 음악이 모듈이 되어야 자유롭게 위치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각 음악의 위치는 관객들의 동선과 연결이 되어있어요. #0부터 #7까지 움직이며 같은 음악이더라도 자신의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들리는 것이죠.

4-1. “공간의 연결”에 있어서는 종소리를 사용했습니다. 정주(Singing Bowl)라고 불리는 악기의 소리입니다. 일종의 놋그릇인데 악기로 사용이 되지요. 관객의 이동을 도와주기도 하고 각 공간에서 일어나는 불필요한 요소들을 깨끗이 씻어주는 역할의 소리입니다.

5. 공간을 나누거나 연결하는 또 다른 방법은 시각적인 도움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 공연의 공간디자이너로 함께하신 한수정 작가님, 서성협 작가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요, 직물을 이용했습니다. 900m에 달하는 천으로 모든 공간을 연결했는데 각 공간에서 연주되는 음악들의 색을 그대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공연은 위의 그림처럼 #0부터 #7까지의 8가지 공간에서 실행이 되었고, 다음과 같은 구조입니다. # 은 공간, M은 음악입니다.

#0은 공연을 소개하는 서곡이 되는 공간으로 각 공간의 소리가 조금씩 비추어지는 곳입니다. #2부터 #4는 2층의 공간으로 가야금 4중주가 이루어지는 곳인데 하나의 듀엣 두 개의

#0 = MG

#1 = M1 + M2

#2 = M3

#3 = M4

#4 = M1 + M2

#5 = G

#6 = ∞

#7 = M5 + M6

솔로로 구성이 되어 관객들의 위치에 따라서 이중주로 들릴 수도 삼중주로 들릴 수도 혹은 완벽한 4중주로 들릴 수도 있는 곳입니다. #5는 소리가 없는 공간 #6은 BLANK 공간으로 여백이 주는 무한함을 나타내는 곳으로 경기상상캠퍼스와 M3의 그대로를 느끼게 되는 공간입니다.

본 공연의 주제였던 봄과 하늘을 소리로 만든 것이니만큼 음악의 제목도 역시 그 생각의 파편들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M1 촉촉이

M2 기다려도 오지 않던

M3 푸르름을 그리도 짙게

M4 내게로

M5 그 자리

M6 그대의 붓끝에

MG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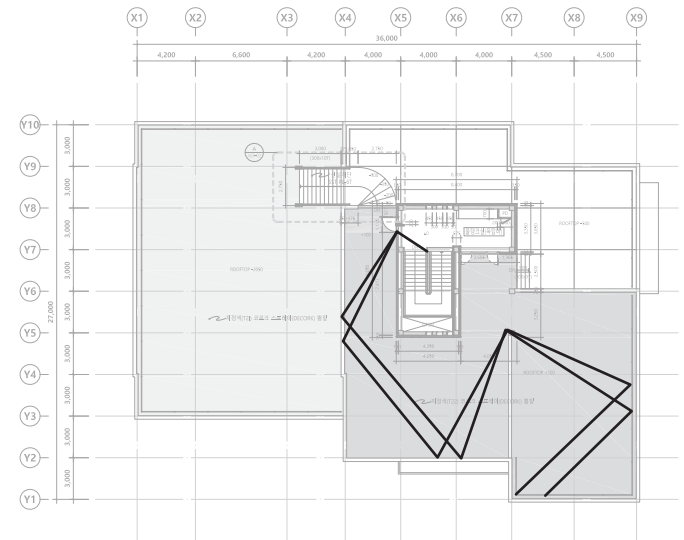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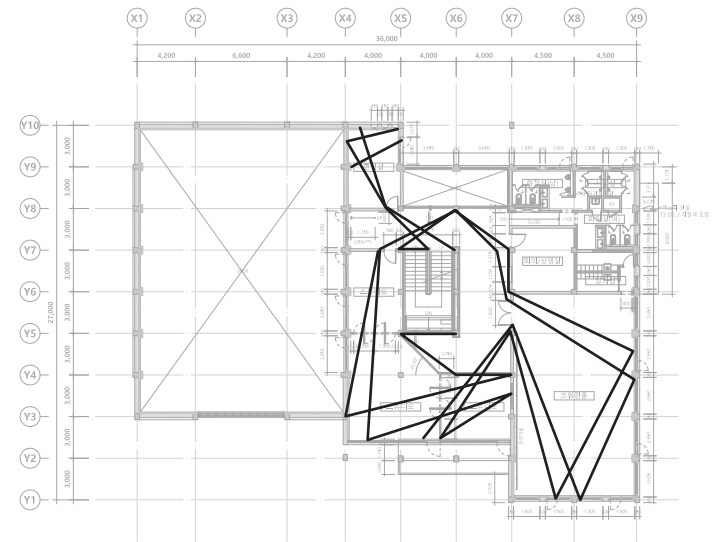
공연 현장과 더불어 온라인으로 음악이 스트리밍되는 것도 있었는데 그것은 전체 공간을 푸른 숲으로 만들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경기상상캠퍼스가 숲속에 있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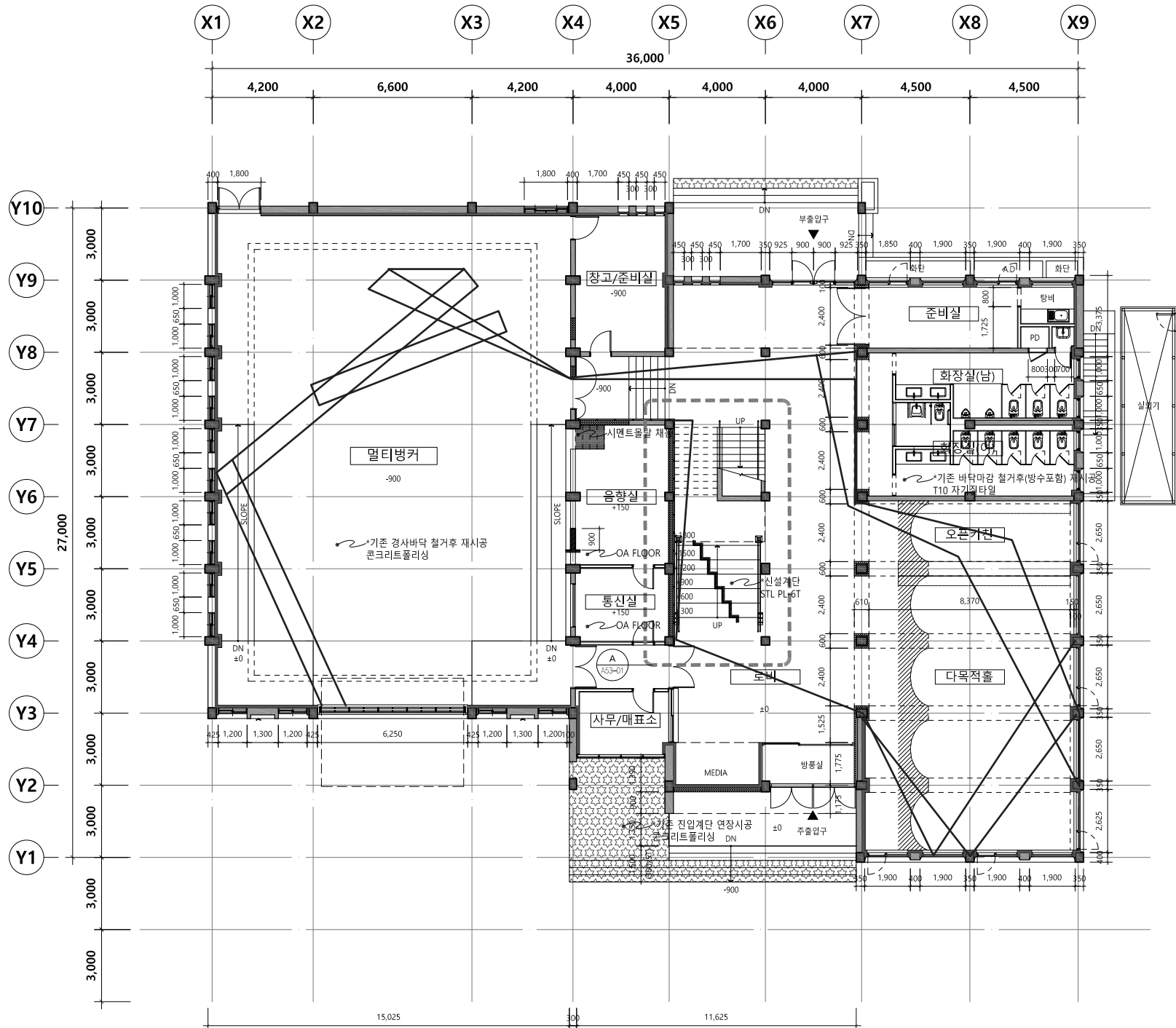
M7streaming 짙은 숲

저도 아직 제가 공연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정리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머릿속에는 있는데 이것을 평면적으로 그리고 글로 풀어나가려니 더욱더 어렵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거대한 어디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의 공연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요. 저도 아직 완벽히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를 건드린 느낌이랄까요. 다음에는 다시 이런 공연이 기회가 온다면 더 오랜 시간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연을 마치고 나니 이 공연이 더 어려워졌거든요.

<봄 그리고 하늘, MMM>의 경우 스케치북에 자유롭게 드로잉하듯이 도면을 활용하면 어떨까 싶어 제안 드렸었고, 축적된 드로잉들이 어떻게 완성된 아이디어로 발전해 나가는지 과정을 드러낼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건축도면을 통해 작곡 한다는 것이 기존에 해오셨던 작곡 방법과는 달라 생소했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요?

박경소 : 맞아요. 난생처음 경험한 정말 생경한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면을 보는 것을 좋아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실은 부동산 전단이나 웹페이지를 통해서 주거공간 도면을 자주 봅니다. 하하하하.) M3의 도면은 너무 전문적인 생김새여서 처음엔 어떻게 보는 건가 낯설었지만, 점점 보면 볼수록 익숙해 지더라고요. 음악의 화성이나 리듬을 정하는 것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각 공간의 치수나 기둥의 개수를 세어본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산출된 수들이 소리를 만드는 것에 직접 사용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계획하는 주제와는 달리 너무 심한 실험 음악이 나와버리더라고요. 하지만 자꾸 들여다보면 볼수록 제가 그 공간에 직접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계속 영감을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연주자의 위치나 관객의 동선을 직접 그려보는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도면에서 보이는 숫자들만 가지고 규칙을 만들어서 곡을 만들어 보아야겠다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들을 수 있게 정리를 많이 해야 할 수도 있지만요. 그땐 도면을 커다란 오선보에 출력해 봐야겠어요. 아, 상상만 해도 재미있습니다.







[https://
sound
cloud
.com/
mxmxm
_m3](https://soundcloud.com/mxmxm_m3)

<봄 그리고 하늘, MMM> 작업하면서 신경을 썼던 부분 중 하나가, 일회로 끝나는 공연이 어떻게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느냐였습니다. 아무리 라이브 콘서트 실황 음반을 들어도 현장에서 만큼의 공감각적인 경험을 느끼기는 힘들 것 같거든요. <봄 그리고 하늘, MMM>의 경우 합주곡에서 공간별로 분해된 음악들이 아카이브 되어 온라인으로 공유된다면, M3 방문자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M3 공간에서 <봄 그리고 하늘, MMM> 공연을 언제나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물론, 공연일처럼 정주도 없고, 한수정/서성협 작가님의 미술 설치물도 없기 때문에 완전히 같은 세팅은 아니지만 말이죠. 정주에 의해 이동했었던 본래 공연과는 다르게 이용자가 자신만의 방법으로 공간을 이동한다면, 분해된 음악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조합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박경소 : 네, 맞아요, 음악을 비롯한 무용 연극 등등의 공연예술은 시간예술이기 때문에 그 순간이 지나면 이미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하지만 2018년 5월 18 일 오후 3시의 M3에서 일어났던 공연은 디지털 세상에서도 존재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어요. 다행히 요즘엔 각자의 기기로 자신만의 환경에서 음악을 즐기는 시대이니까 어렵지 않은 문제잖아요. 물론 그 장을 어떻게 만드느냐는 쉽지 않지만. :)

각자의 공간에서 자신의 방식대로 공연을 즐기기를 본격적으로 고민했습니다. 우선은 사전 녹음을 통해서 모든 공간 즉, #1부터 #7에서 연주될 각각의 음원을 모두 녹음했고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음악 (이중주, 삼중주, 사중주 등등) 그리고 관객분들이 현장에서 라이브를 보며 함께 들을 수 있는 음악들을 모두 녹음했어요. 기록만을 위한 녹음이 아니라 제대로 된

- | | |
|----|------------------|
| 1 | M1 축축히 |
| 2 | M2 기다려도 오지 않던 |
| 3 | M12 |
| 4 | M3 푸르름을 그리도 질게 |
| 5 | M4 내게로 |
| 6 | M1234 |
| 7 | M5 그 자리 |
| 8 | M6 그대의 붓 끝에 |
| 9 | M56 |
| 10 | M7streaming 짙은 숲 |
| 11 | M567streaming |

음반을 만들기 위한 녹음으로 믹싱 마스터링도 모두 마쳤고요. 그 음원들이 위의 주소에 남아있는 거예요. 공연하는 시각까지는 라이브와 함께 들을 음악 <M7streaming 짙은 숲>만 열어두고 공연을 마치자마자 모든 음원을 열어 공유했어요.

여러분들만의 공연을 만드는 방식은 아주 간단해요. 자신이 가진 기기들로 위의 링크에 접속하셔서 M3 X Kyungso Park 재생목록의 음악을 틀어두시면 됩니다. 걸으면서 들으셔도 좋고, 그저 이방 저방에 모든 디바이스들에 동시에 플레이해 두셔도 좋아요. 접속하시면 M1부터 M7에 이르는 (곡 제목이 붙어있는) 7가지의 음악이 있는데 그중에 <M7streaming 짙은 숲>은 깎두기 같은 곡이라 어떤 상황에 틀어 놓으셔도 잘 어울릴 거예요. 친구 네 명이 함께 접속하셔서 각자 M1, M2, M3, M4를 동시에 플레이 하셔도 되고, 세 분이시면 세 개만 플레이하셔서 삼중주로 들으셔도 되어요. M5와 M6는 옥외 공간에서 연주하기 위해 만든 곡이라 그 느낌은 그대로 느끼시고 싶으시다면 야외에 나가서 플레이해보셔요. 저는 개인적으로 화면에서 보이시는

순서 그대로 M1부터 마지막 트랙까지 순서대로 주욱 들어보니
좋더라고요. 하하하, 제가 제 음악을 좋다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백과 가야금 소리의 적절한 협업이 있어서 기존에
음악을 감상하시던 느낌과는 전혀 다르실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앨범을 만들 때 늘 그러하듯 이번 M3를 위한 곡
순서도 신경 써서 정했어요!)

물론 공연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그 날의 소리도 담았어요.
아카이브용으로도 중요한 작업이죠. 모든 연주자와 공간의
소리를 담아 믹싱/마스터링을 했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점은요,
이 음원을 듣는이가 자신이 마치 모든 공간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게 하더라고요. 왜냐면 1층의
소리 2층의 소리가 모두 담겨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저는 #0
에서 연주를 하고 있었고 관객들은 제 연주를 듣고 있었지만 1
층의 로비 공간 즉 #1에서 연주자들이 준비하는 소리, 2층과
옥상에 연주자들이 연주 준비를 위해 올라가는 발걸음 소리,
경기상상캠퍼스 선생님들께서 케이터링을 준비하시는 소리도
함께 들립니다. 관객분들의 이야기 소리는 물론이고요. 이 모든
공간의 소리를 한 트랙으로 담았어요. 전지전능!! 물론 그대로
들으면 도저히 시끄러워서 무엇 하나에 집중할 수 없는 음원이
되어버리는지라 중요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믹싱을 하했어요.
1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느낌이 들게 소리 위상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 부분은 정말 너무 높은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공연의 현장을 구석구석 모두 들여다 보는 충분한 자료가
만들어졌으니 사전 음원과 더불어 M3 개관의 소리도 함께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6]

천을 이용해 공간과 공간을 잇고, 동시에 서로 다른 색의
천으로 공간과 공간을 구분했던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공연날
햇살이 좋은 날로 예상했는데, 창으로 들어오는 자연광이
파스텔 톤의 천을 통해 스며들면 M3 공간이 별도 조명 없이도
따뜻하고 풍성할 것 같았거든요. 예상과 달리 날이 흐리고
비가 내려, 흰색 형광등을 사용할 수밖에 아쉬웠던 생각이
납니다. <봄 그리고 하늘, MMM> 공간 연출을 작업하면서
중요하게 고려했던 요소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한수정 : 처음 박경소 작가님과 미팅을 했을 때, 이미 공연에 대한
구상은 나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 각 공간에 따라 다른
연주자가 연주하고, 그 연주 음들이 각각의 모듈처럼 작용하여
다른 모듈 음악들과 어우러지게 하고 싶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처음 도면과 영상을 통해 M3 공간을 접했고, 기존 건물이
가지고 있던 느낌을 잘 살려서 리뉴얼 한 작업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실제 현장 답사를 통해 확인한 각 공간의 부피감은
매우 다양했고, 각기 다른 공간의 느낌을 연결 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간과 연주자는 고정되어 있고 정적인
느낌이라, 각 연주자의 겹쳐지는 모듈 음들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공간과 공간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요소를 찾기 시작했고, 그중의 하나가 한복을
만들 때 쓰는 노방천이었습니다. 박경소 작가님이 작곡하시는
다양한 모듈 음악에 대응하는 다양한 컬러를 사용할 수 있는
것과 공간을 투과하는 빛과 잘 어우러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컬러의 노방천들을 통해 각 공간에서
나오는 모듈 음악들이 중첩되는 느낌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문제는 이 천들을 현장 설치하는 방법이었는데, 30분의 공연 때문에 새롭게 개장하는 건물에 못이나 피스를 박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유리에 붙이는 뽁뽁이를 구입하여 천에 이어 붙였습니다. 다행히 공간에 유리창이 많았고, 천들의 무게도 버틸 만큼의 접착력을 가지고 있어서 설치, 철거 작업을 손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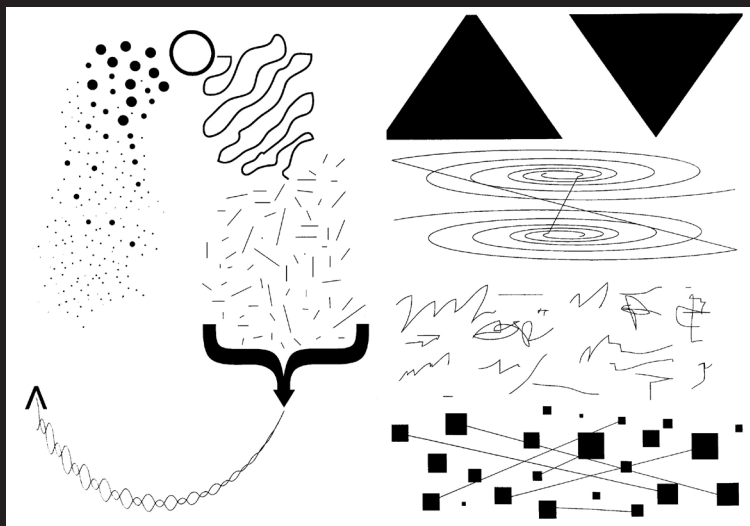
설치할 때의 에피소드를 얘기하자면, 공연 3일 전부터 공연일까지 폭우가 쏟아질 것이라는 예보를 받고,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옥상에서도 2명의 연주자가 공연하기로 계획되어 있었고, 전체공연을 마무리하는 가장 클라이맥스가 될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가 조금 내려도 일단 설치는 완료했습니다. 다음날 와보니 밤새 내린 폭우로 다 날아가 버렸지만 다시 설치를 마치고 노심초사했었는데, 역시나 공연 당일에도 비가 부슬부슬 오는 바람에 옥상 연주 신은 옥상 바로 옆 계단실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비가 와서 처음 생각했던 공간의 색감은 느낄 수 없었으나 비가 오는 날의 여남은 빛에 대한 느낌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건축에서 생각하는 남향의 강하고 화려한 빛도 있지만, 북쪽의 빛처럼 은은하고 꾸준한 빛도 있기 마련이니까요. M3 공간이 추구하는 방향도 다양한 접근방식들을 연결해주는 매개체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Namwoo Bae(M3 Project Manager)

1



순 그린리+파경소행영국영<순회자>아보, 2015

The first thing came to my mind while I was preparing for M3 opening program was the graphic score above. It was the score that you used in 2015 at the collaborated performance with Shawn Greenlee (American sound artist) in Gyeonggi Creation Center. It was interesting that material and abstract factors such as space, time, history, and nature were expressed in graphical data, then were changed impromptu with the sounds of gayageum (Korean harp) and computer. The freedom which can be expressed in diverse forms depending on the interpreter would fit M3 as "porosity space." As a professional musician who has performed at various performance halls in different

countries and cultures, I am curious what you felt when you first visited M3 where is an empty and imperfect space.

Park Kyungso: My first thought was, "hurray!" Hahaha. Then I thought, "I can play with whatever I want to experiment!" At the same time, I had a sudden rush of thoughts in a spark. It was an opportunity to realize making sounds and pictures that I've vaguely been thinking and waiting for the right time to come. So, the right time has come, finally! In a word, "hurray!" I cannot forget the experience of having sounds and pictures in my head while I was navigating each space as I took my first step into M3. Maybe people didn't recognize my feelings but I was really excited that day to be honest. Hahaha.

Also, it could be said that M3 is imperfect, but it was not empty for me. It has its own story as basis, right? Because that place was used for lectures before. As of now, it exists as a renovated space. Plus, the near-by building under construction, the sound of a jet, and trees turning colors every season were also interesting. They were not only stimulants but also necessary limitations for me. Once, my teacher, Byeong-gi Hwang answered to my question. He said the limitation makes things fun. Tennis court makes playing tennis fun. What fun would it be to play on an empty lot? M3 provided me exactly that.

2

The idea that limitation is a part of performance's process, or that it is an applicable part is very interesting. Gyeonggi Sangsang Campus, where M3 is located, is a place highly limited by the "jet noise" from the near-by Suwon Air Base. If a jet takes off during seminars or conversations, everything is paused. It's an inconvenience. In <Spring and Sky, MMM>, it is interesting how the jet noise is considered part of the performance. If we say that noise is what humans consider undesirable, and that melody and tune are continuation of harmonized notes' highs and lows comprising contents of music, I think that <Spring and Sky, MMM> was an experimental performance in which these two contradicting sounds coexist. I'm saying this because no jet took off on the performance date due to the rain. Thanks to that, it could be a quiet and calm performance, but the planned experiment resulted as a failure.

Park Kyungso: That's right. Our second rule that everyone stops when there's the jet noise completely went to a naught. It was so disappointing, but what went to naught isn't only the second rule. The fifth space of margin (#5) and the sixth space of facing it as it is (#6), and the seventh space of sky and clouds (#7) all disappeared. Especially music in #7 was supposed to be played outdoors on rooftop that borders the nature, but after a painful consideration, we played #5. Also, moving to #6 and #7 was decided at the end of #5, while performance was ongoing. Although #6 and #7 were mixed, we ended up going outdoors and could finish our performance there. It was a relief. Through the performance, we could introduce all spaces of M3.

There was a lot of changes to the original plan in this way, but I personally liked that it rained. It's not the kind of performance that'd be stopped by the rain. That's right. The performance actually had a heightened atmosphere. There's a saying, "Rain on a moving day means luck." M3 will be filled with really great works. I suddenly want to say thanks to our directors, artists, and players, for overcoming hardships caused by the rain. Thank you very much. You're the best. Hurray!

3

Unlike usual performances that has to be progressed in quietness, you suggested the "moving audience performance," in which audience has to move in between spaces inside M3. The audiences could switch between "watching the performance" and "experiencing the space" so they could listen to Korean classical music in a more experimental and fun way. How did you conceptualize the organic connection structure or the narrative among the performance that the audience has to move around, the space and gayageum?

Park Kyungsok: Among the ones that I've directed, this performance was one of the most complicated. Thus, answering that question would be also complicated. Hahaha. First of all, I'm not the first to organize such moving performance. Such form of plays have been made already for quite long in dramas or dances. Music performances are not exceptions. So, I also vaguely thought about having a performance the audience has to move, and I executed

it personally for the first time here. As a matter of fact, I heard that there were no audience moving performances in the field of Korean traditional music, especially with the gayageum performance. In this performance, I wanted the audiences to move not only to introduce the spaces but to give them an opportunity to voluntarily analyze the music while listening. It means, I wanted to realize the importance of placing each sound at a certain location by moving the audiences. It's different from listening to a complete ensemble. The audiences make their choices and listen to form an ensemble. #0 space is like an overture that introduces the performance, and from #1 to #7, the audiences move to listen not only the surface of the music but also the deeper inside of it.

Music - Module

Flow of Movement

Location of Sounds

The overall picture of the performance was decided in a very short time, but details were not as simple. Of course, such complexity is not seen outwards in the performance. At first, I had to think of details in a congruous sense as they could not be prioritized. I had to decide each space's character and music, forms of music and numbers of players, the expected movements of audiences and what may happen in each space, etc. I thought about them simultaneously and weaved them. Once substantially organized, I organized them in order. I cannot say precisely, but the following roughly shows the flow of creation.

1. "Dividing the space" was very simple. I used my own flow of movement when I first got there. That movement must have been natural when I first encountered the space.

2. I could read the "Character of the space" very naturally, too. Each space had its distinct form and atmosphere. The rooftop was an exception where was connected to the exterior and had many factors that made it difficult to be divided. But I divided it focusing on the natural form of M3 building.

3-1. The "Plan for the music" was to fill up M3 with gayageum sound. Thus, I had to think of how many gayageum players I could hire when composing the first draft of the music. The number of players was important in order to fill the space. In addition, I had to decide whom to hire in order to decide details of the sound. It's because every player has his or her unique sound. In this way, three factors including music, space, and players were considered, and I've come to a conclusion that gayageum sound should fill the space wholesomely in duets or solos.

3-2. I thought "Music of each space" needed to be connected to one another. The reason was simple. As a whole, it is a same space but the audiences enter different rooms, and there was a distinction between indoors and outdoors. First, I made an ensemble piece to be played on the first and the second floors, and then I made another piece for the rooftop and outdoors. After the ensemble pieces were finished, I decomposed them again to allocate in each space. For this, each music had to be a module to be placed freely. The location of each music is relevant to

the flow of movement. Moving from #0 to #7, the same music would sound different depending on the audience's location.

4-1. For the "Connection of space," I used bell sounds. This instrument is called "Singing Bowl." It's a sort of brassware which is also used as an instrument. The role of this sound is helping the audiences to move and to get rid of the unnecessary elements occur in each space.

5. Another way of dividing or connecting spaces was getting a visual aid. This part was made by artists Han Sujeong and Seo Sunghyeop, who worked with me as space designers. They used fabrics. They connected all spaces with a 900m fabric which expressed the colors of music being played in each space.

This performance was executed in eight spaces from #0 to #7, and its structure is as follows. # indicates space and M is music.

#0=M_G

#1=M₁+M₂

#2=M₃

#3=M₄

#4=M₁+M₂

#5=G

#6=∞

#7=M₅+M₆

Space #0 is an overture that introduces the performance, and little bits of sound of each space is heard here. Spaces from #2 to #4 are on the second floor where gayageum

quartet is played. It's comprised of a duet and two solos, so it could be heard as either a duet, trio, or a complete quartet depending on the audience's location. #5 is a silent space and #6 is a blank space that showed infinity of the blank where people could feel Gyeonggi Sangsang Campus and M3 as they are.

The theme of this performance was spring and sky which were made into the sounds. Hence, when I was making the title of the music, I used the fragment of that thought as well.

M₁ Moist

M₂ What wouldn't answer my waiting

M₃ Such density of the green

M₄ To me

M₅ That spot

M₆ At the tip of your brush

M_G ∞

Along with the performances, we played online music streaming which made the whole space as a green forest. After all, because Gyeonggi Sangsang Campus is inside the forest.

M₇ streaming Dense Woods

Even for me, it's not easy to organize how the performance was created. It's in my head but writing it out into two dimensional is really difficult. For myself, it was a gateway performance that would lead me to somewhere bigger. I feel like I have touched something I haven't completely

understood. If I ever get another chance for such performance, I would like to have much longer time to prepare. Once the performance was over, it became more enigmatic for me. I don't even know if answered well for your questions. Haha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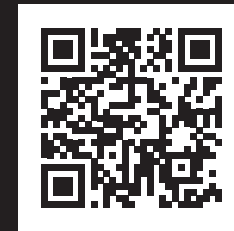
④

In the case of <Spring and Sky, MMM>, we suggested utilizing the floor plan as if free-drawing on a sketchbook. We thought it would be great to show the process of accumulated drawings develop into a complete idea. Maybe it was unfamiliar for you to compose using an architectural plan compared to your previous ways of composing. How was it?

Park Kyungso: That's correct. It was a truly strange and first time in my life experience. However, I like looking at plans, so it was really exciting (In fact, I often look at house plans on real-estate ads or websites. Hahaha.) Although the plans of M3 were so professional that I had a hard time reading them at first but I slowly got used to them. I tried to count each space's measures or number of columns in a hope that doing so would help me setting the music's chords or rhythms. However, I couldn't directly use such calculated numbers for making the sounds. Too serious and experimental music came out with those calculated numbers which didn't go with my planned theme. But as I looked at the floor plans more and more, I felt like being inside the spaces and kept inspired by it. Also, there was no better way to draw the players' or the audiences' flow

of movement. If I get another chance in the future, I'd like to make a rule using only the numbers on the plans to compose a music. Maybe I should organize more to make them audible. At that time, I should print out the plans on a huge music sheet. Ah, just imagining it makes me so excited.

⑤



https://soundcloud.com/mxmxm_m3

One area I gave utmost attention while working for <Spring and Sky, MMM> was how the ephemeral performance can obtain the sustainability. Even the concert recordings cannot provide the same experience of the actual space where you can have an experience of synesthesia. In case of <Spring and Sky, MMM>, I thought if we archive fragments of ensemble music of each and share them online, M3 visitors can use their smartphones and enjoy M3's <Spring and Sky, MMM> performance at any time. Of course, it can't be the same setting because there'd be neither the singing bowl nor installation arts by Han Sujeong and Seo Sunghyeop. Instead of moving according to the singing bowl like in the original performance, the audiences can move in their own ways which will combine

the fragmented music in diverse ways.

Park Kyungso: Yes, that's true. Performance arts like music, dance or play are time arts and ephemeral. It's really unfortunate. I want the 3 o'clock performance on May 18th, 2018 at M3 to exist at least in the digital world. Fortunately, it's not too difficult these days in the era that people enjoy music in their own environments on their own devices. Of course, it's a tough question how to make that ground. :)

I contemplated on enjoying the performance in individual's own space in his or her own way. First of all, I recorded all the music to be played from #1 to #7 in advance, and all the music that would be performed at the site (duets, trios, and quartets, etc.) and all the music that the audiences could listen to while watching the live show at the space. I wanted it to be good and not just a recording for the sake of archive. So, I completed all the mixing mastering. You can find these sound sources at the address above. We offered only the music of <M7streaming, Dense Woods> which you can listen with the live show until the performance was held, and then we opened all other music files after the performance was finished.

It's simple to make your own performance. With your own device, go to the link above and open the music from M3 X Park Kyungso playlist. You can either listen while walking, or just use all your devices to play them in different rooms. If you log in, there are seven music from M1 to M7 with their titles. Among them, <M7streaming, Dense Woods> would go well with almost all the situations. Four friends

can each play M1, M2, M3, or M4 at the same time, or if you are a group of three, you can play just three of them to listen to a trio. M5 and M6 were made to be played outdoors. If you want to feel the original sentiment, you could go outside and play them. Personally, I like to play from M1 to the last track in sequence. Hahaha, I like my music if I may say so, but the balanced collaboration of blank and gayageum sounds would be totally different from what you have previously listened to. (I carefully set the sequence of music for M3 as I always do when creating an album.)

Of course, I also recorded the sounds of the performance day in order to recall the memory of performance. It's an important step for archiving. I recorded, mixed and mastered all the players' and the spaces' sounds. What's really interesting is the listeners of these sound sources become omnipotent because they feel like existing in all the places at once. It's because I recorded all the sounds on the first and the second floors. For example, I was playing at #0 and the audiences were listening to my performance, but they can also hear players from #1 at the first floor lobby, the sounds of steps going up to the second floor to the rooftop, and the teachers of Gyeonggi Sangsang Campus preparing for catering services all together. The audiences' conversations are also contained. All of these spaces' sounds are recorded in one track. Omnipotent!! Of course, if you listen to all these sounds at once, it would be just a noise which you can't concentrate on one sound. So, I picked important parts and mixed them. I wanted to give the feeling of phase as climbing upward from the first

to the third floor, but that was too higher state of work. However, I hope you enjoy the sound of M3's opening ceremony because we recorded sufficient data for you to travel every corner of the site.

6

It was impressive how fabrics were used to connect and divide spaces at the same time with colors of fabrics. We expected the weather would be good on the performance day to make warm and abundant ambience in M3 spaces even without extra lightings if the natural sun light smear through the pastel toned fabrics. Unfortunately, it was cloudy and rainy, so we had to use the white fluorescent light. What did you focus on while working on <Spring and Sky, MMM>?

Han Sujeong: When I met artist Park Kyungso for the first time, he already had a plan for the performance. Most of all, his plan was to have different players to perform in each space and the sounds work as modules to interact with each other.

I first encountered M3 spaces through floor plans and video, and felt that the building was renovated in an attempt to keep the original feeling of the existing building. When I actually visited site, I realized that each space had various sense of volume and I found some elements that could connect each space with different atmospheres. Practically, the spaces and the players are fixed and static, so I contemplated on how to show overlaying module

sounds visually. That's why I tried to look for elements to connect spaces and one of them was nobang (hemp) fabric used for the making Korean traditional clothing, Hanbok. I chose this because I could use diverse colors for diverse module sounds composed by Park Kyungso. Also, this fabric would go along with the light that penetrates the spaces very well. I sought a way create a feeling of sound modules from each space overlapping through the nobang fabrics in different colors.

The problem was how to install these fabrics at the site. We couldn't drive nails or pins at the newly opening building for the 30-minute performance. Fortunately, there are many windows at the site so we bought glass stickers and their adhesive strength were good enough to hold the weight of fabrics. So we could install and remove the fabric easily.

There's an episode while we were installing. Just three days before the performance, we heard that it would rain heavily and I didn't know what to do. According to the plan, two players had to play on the rooftop and also it should be site for climax of the entire performance. Therefore, we installed the fabric anyway although it rained a little. The next day, we found that the fabric was all blown away due to the heavy rain. We installed it again and were very worried. However, it was still raining on the day of performance, so the rooftop performance ended up being played in the stair room right next to the rooftop.

Although we couldn't show the color sense of the space as we planned due to the rain, the dim light of rainy day didn't look bad. After all, there's the strong and brilliant lights

of southern exposure but also the faint yet steady lights of northern exposure in the architecture. I believe that the spaces at M3 also pursue to take the role as a medium which connects diverse approaches.

M1 at #1, #4

<봄 그리고 하늘, MMM>

박경소 Kyungso Park



M2 at #1, #4

<봄 그리고 하늘, MMM>

박경소 Kyungso Park



M3 at #2

<봄 그리고 하늘, MMM>

박경소 Kyungso 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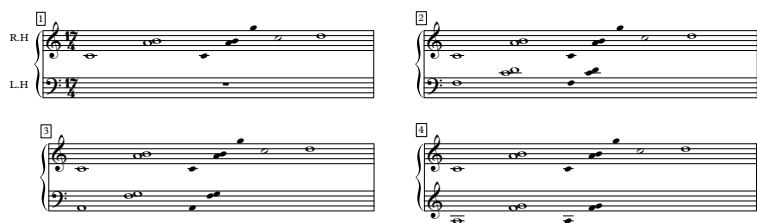
M4 at #3 <봄 그리고 하늘, MMM>

박경소 Kyungso Park



M5 at #7 <봄 그리고 하늘, MMM>

박경소 Kyungso Park



연주 순서 예시 :
①×4 → ②×2 → ③×2 → ①×2 → ④×2 → ③×2 → ②×2 → ①×1

M6 at #7 <봄 그리고 하늘, MMM>

박경소 Kyungso Park



MMM Duet <봄 그리고 하늘, MMM>

박경소 Kyungso Park



31

3

36

MMM idea sketch

954.5 Kungu Park

♩ = 120

♩ = 120

Copyright © 2014 954.5 Kungu Park

11

29 3

31

MMM Quartet <봄 그리고 하늘, MMM>

박경소 Kyungso Park

♩ = 110

G4

G5

G6

G7

2 7

8^{va} 6^{va} 1

14

3

27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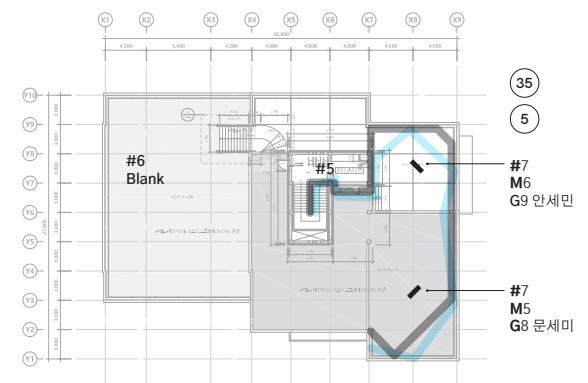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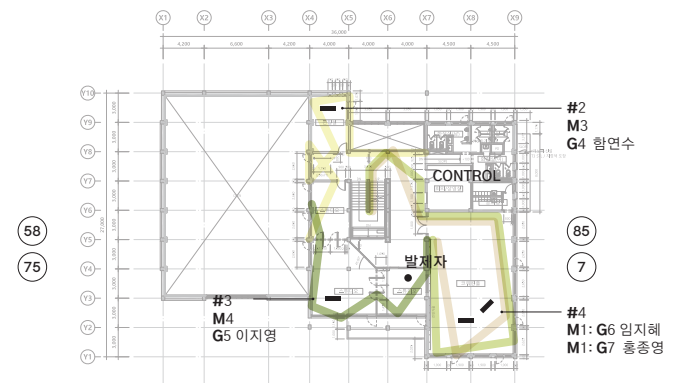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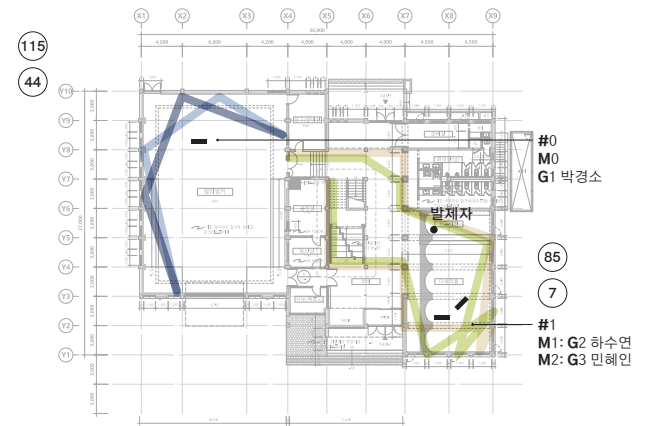
4
21

6
33

37

7

공간 M 음악 G 연주자



2018/05/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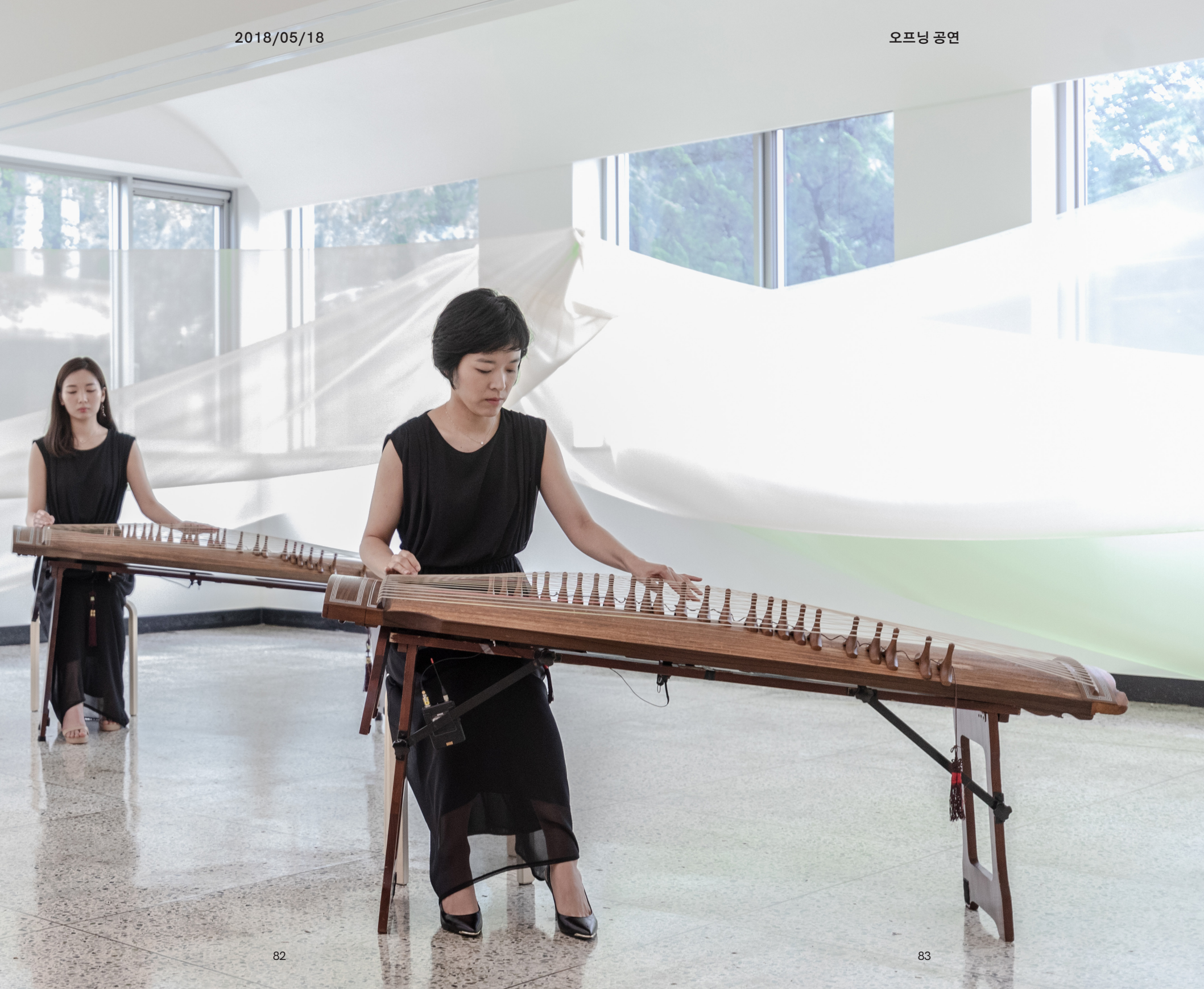
최종 리허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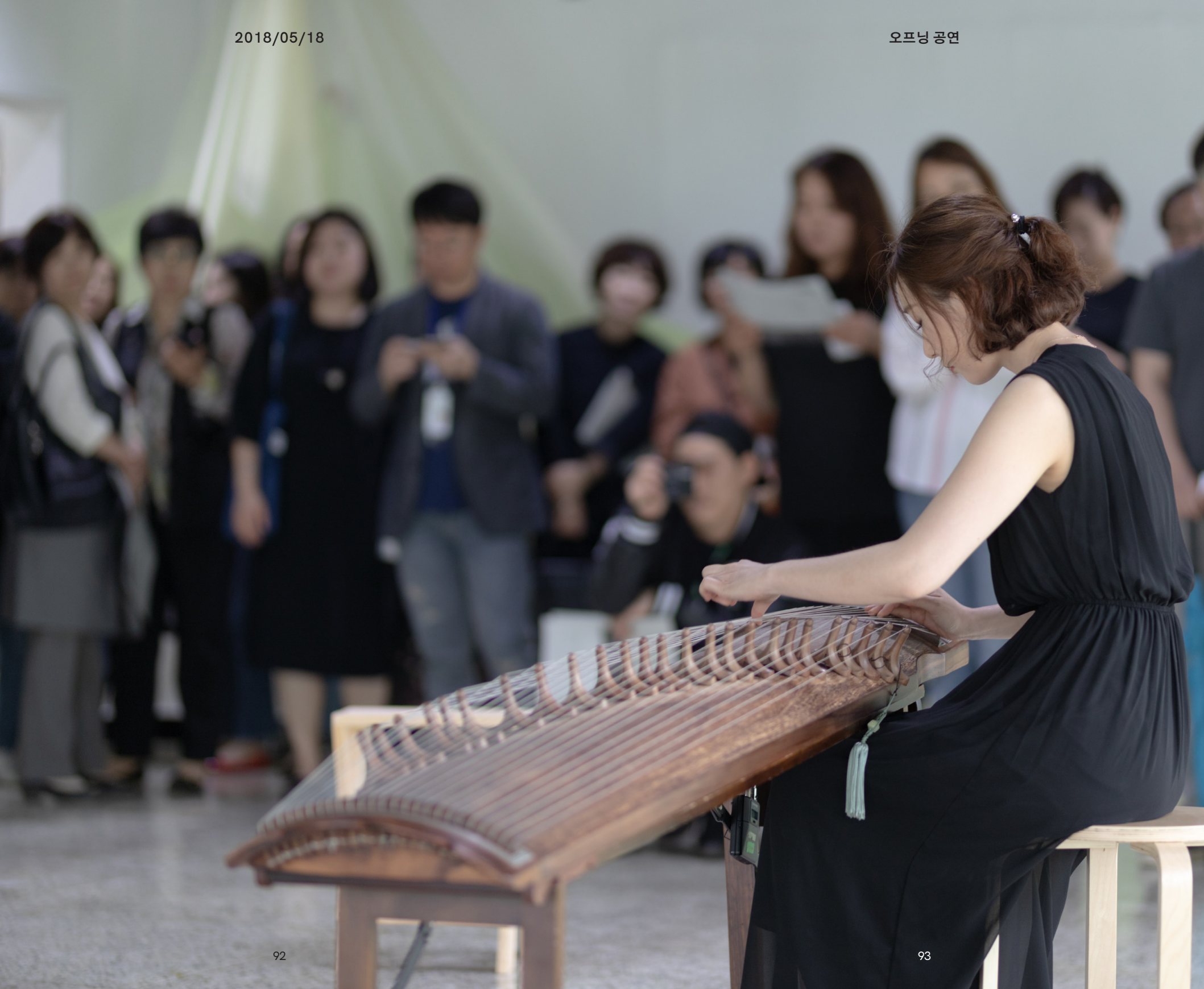


















2018/05/18



M3 봄 그리고 하늘, MMM

연주/작곡/예술감독 박경소
연주자 민혜인, 임지혜, 하수연,
함연수, 안세민, 홍종영, 문세미,
이지영
녹음엔지니어 박재식
스튜디오녹음 박근상(젤리사운드)
공간디자이너 한수정, 서성협(G280)
프로듀서 안상욱, 김보슬(플랑크톤뮤직)

M3 SPRING AND THE SKY, MMM

PERFORMER/COMPOSER/ARTISTIC
DIRECTOR Park Kyungso
PERFORMER Min Hye In, Lim Ji Hye,
Ha Suyeon, Hahm Yeon Su, An se min,
Hong Jong-yeong, Moon se mi,
Yi Jiyoung
SOUND ENGINEER Park Jaesik
STUDIO RECORDING Park Keunsang
(Jelly Sound)
SPATIAL DESIGN Han Sujeong,
Seo Sunghyeop (G280)
PRODUCER An Sangwook, Kim Boseul
(Plankton Music)

M3

총괄 황순주 |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팀장
기획 배남우
디자인 조예진(kit)
주최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주관 경기상상캠퍼스
발행인 설원기
발행처 경기문화재단
발행일 2018.07.00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경기상상캠퍼스
전화 +82 31 296 1980
팩스 +82 31 296 1998
web sscampus.kr

M3

PUBLICATION IN CHARGE
Hwang Soonjoo | Team Leader Regional
Culture Division in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CURATOR Namwoo Bae
GRAPHIC DESIGN Yejin Cho(kit)
HOST Gyeonggi-Do,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ORGANIZE Gyeonggi Sangsang Campus
PUBLISHER Seol Wonki | President of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DATE OF PUBLISHING July XX, 2018
ADDRESS Gyeonggi Sangsang Campus
166 Seodoon-ro Kwonseon-gu Suwon-si
Gyeonggi-do, South Kore
TEL +82 31 296 1980
FAX +82 31 296 1998
WEB sscampus.kr



경기상상캠퍼스

